

# 재해에 대한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 SDGs approach towards Building Resilience to Disaster and Climate Change

홍일표 \*, 박지현\*\*  
Hong Ilpyo, Park Jihyeon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기상학적인 극한 사상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그 발생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 쓰나미와 같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로 본다면 지구상의 재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물관련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나 최빈국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9월 UN 세계지속가능 정상 회의에서 각국의 수반들 또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post-2015 아젠다가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감한 혁신적인 조치임을 인식하였다.

재해경감과 지속가능개발은 2005년 채택된 “효고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2015년 3월 제3차 세계재해경감대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은 Post-2015 개발의제의 첫 번째 합의 결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의 실질적인 감소와 재해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과 대형 인프라 피해의 경감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은 SDGs의 Goal 11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골에서 재해로부터의 리질리언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최빈국, 개도국, 군소 도서국가들과 중견국·선진국들의 양자간이나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 물관련 재해, 리질리언스**

\* 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E-mail : iphong@kict.re.kr

\*\* 정회원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 E-mail : ireneparkgo@gmail.com